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공동 선언문

2021년 8월 20일

1. 대한민국, 일본, 중국 교통물류 장관은 2021년 8월 18일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우리는 앞서 일곱 차례 개최된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실천과제의 추진현황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코로나19가 국제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요 목표와 실천과제를 재조정하였고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것을 독려했다.
- 2.1. 우리(대한민국, 일본, 중국 교통물류 장관)는 3국이 세계 경제 및 무역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2020년 3국의 GDP 총액은 세계 경제의 약 25.3%이고(IMF), 3국에서 발생하는 무역액은 약 6조 4,560억 달러로, 2020년 전세계 무역액의 18.7%이다(IMF).
- 2.2. 우리는 국가 간 공급망의 급격한 발전으로 더욱 긴밀해진 3국의 상호의존적 경제 속에서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우리는 교통물류분야에서 3국 간 협력하는 것이 각국의 산업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상호호혜적 관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 3.1.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지 거의 1년 반이 되었고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된 분들과 고통 받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 3.2. 코로나19는 세계 물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예로, 여객기 운항이 급격히 줄어들어 항공화물 적재 공간이 부족해졌다. 운송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해상공급망의 심각한 효율성 감소는 해상운송 컨테이너 및 선적공간 부족을 야기했다.

- 3.3. 우리는 물류의 최전선에서 공급망을 수호하고 사람들의 삶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 3.4.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3국 간 협력을 확인하고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물류체계를 수호하고자 2020년 6월 29일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특별세션을 개최하였으며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3.5.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물류분야에 미치는 계속된 영향을 바탕으로 3국이 물류의 현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3국 간 탄력적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 4.1. 2006년 제1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이후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구축", "물류보안과 물류효율성의 조화 달성"이라는 물류 협력의 세 가지 주요 목표 아래 실천과제가 선정되었고 이행되었다.
- 4.2.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물류체계가 와해되었으며 공급망 복원이 중요한 정책사안으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하여 "탄력적 물류망 촉진"을 주요 목표로 새롭게 선정하여 기존 목표인 "물류보안과 물류효율성의 조화 달성"을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4.3. 또한, 우리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주요 목표에 따라 실천과제를 재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3국 간 협력의 본질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 4.4. 3국의 공통 실천과제는 탄력적 물류망 구축을 위한 3국 간 협력 및 공조와 물류 디지털 전환 추진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천과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각각 주관하여 추진한다.

4.5. 중국은 3국 물류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동북아 해륙복합운송 경험 공유 및 협력 발전, 그리고 항만 간 밀접한 협력관계 증진을 주관한다.

4.6. 일본은 물류장비의 표준화,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을 위한 노력, 그리고 환경 친화적 물류정책 도입을 주관한다.

4.7. 한국은 물류보안 확보와 물류 효율화 간 조화 방안, 북극항로 상용화 대비 한중일 협력 증진과 신선물류 네트워크 활성화를 주관한다.

5. 탄력적 물류망 촉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로 해상과 항공운송분야에서 물류체계가 와해되었고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여겨 온 공급망이 손상되었다. 이는 우리에게 탄력적 물류망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5.1. 우리는 3국 간 협력을 강화시켜 탄력적 물류망을 수호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가로막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물류정책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3국이 국내외 물류정책에 대한 경험과 모범 관행을 계속 공유할 것을 장려한다.

5.2. 우리는 물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류보안에 대한 3국 간 정보공유 및 기술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6.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새로운 생활방식의 확산으로 제1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막힘없는 물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는 것은 3국 모두에게 이롭다.

- 6.1. 우리는 물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물류의 본질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교통물류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 분야에서 3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6.2. 물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물류의 각 요소를 표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물류 표준화가 전체 공급망의 최적화로 이어진다고 인식하며, 그러한 점에서 아시아팔레트시스템연맹(Asian Pallet System Federation, APSF)이 달성한 팔레트 표준화를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3국이 팔레트를 포함한 물류장비의 표준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할 것이다.
- 6.3. 우리는 세계 신선물류망이 확대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로 신선식품 운송량이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였으며, 원활한 신선물류망은 식품안전성을 높이고 음식쓰레기를 줄여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유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신선물류의 세계 표준화를 달성하고자 협력하고 공동연구 이행을 장려할 것이다.
- 6.4. 우리는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이 해상육상 복합운송의 속도와 품질을 높여 3국 간 연결성을 개선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민간부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6.5. 우리는 동북아 물류서비스 네트워크(NEAL-Net)의 정보공유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자 정보공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항만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다른 지역 항만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의 NEAL-Net 사용자 수요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타 교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6.6. 3국은 해상육상 컨테이너 복합수송의 향후 방향과 3국 간 협력의 본질을 정하기 위해 해상육상 복합운송의 현 상황 및 문제를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7. 환경친화적 물류 구축

2020년 3국 정상은 탄소중립성 목표 발표와 더불어 SDG 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7.1. 우리는 환경친화적 물류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3국 모두 탄소중립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우리는 전환교통을 통해 물류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각 운송수단과 물류시설의 탄소중립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각국 정책을 공유하고 환경친화적 물류를 위한 공동연구를 강화하여 3국 및 민관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7.2. 우리는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와 더불어 재활용 운송수단(RTI) 사용이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 RTI의 폭넓은 사용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8.1. 우리는 3국 간 협력 증진에 있어서 한중일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의 역할을 재확인하였으며 TCS가 3국 간 운송 및 물류 메커니즘에 더욱 폭넓게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을 표명하였다. 올해 TCS 설립 10주년을 맞아 3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다.

8.2. TCS의 전폭적 지원으로 우리는 2021년 8월 6일 공식적으로 누리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본 누리집을 통해 지난 15년 간 성과 공유, 3국 간 협의 과정 활성화, 3국 정책문서 및 연구자료 교환, 그리고 지속적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본 누리집을 통해 장관회의 정보에 대한 3국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다.

9. 차기 장관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될 것이다.

10.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는 일본 국토교통성 및 고베시의 회의 주최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